긴급공청회

# 사료가격 인상과 양계업

편 집 부

정부는 지난 6월 28일 환율을 대거 13%인상(달러당 371원 60전) 시키는 반면 금리를 2%인하 시키는 중대한 조처를 단행하였다. 환율을 인상하면 물가가 뛸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정부가 이런 조처를 피하지 못한 것은 IMF(국제 통화기금) 당국의 압력에 못 이겼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년래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12.9%로 아르헨티나 월남등, 경제가 아주 혼란한 몇나라에 이어 세계 제7위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물가안정을 위한 당국 갖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수은주는 무더운 여름을 타고 높아만 지고 있다. 환율인상 직전에 이미 가격인상 혜택을 받은 설탕, 밀가루, 면사업계도 환율이 인상되자 이를 구실로 다시 가격인상 공세를 가하기 시작 정부의 가격 억제 공약이 이들의 아우성 앞에 견디어 낼까 의문이다.

한편 이 환율인상의 영향은 원료비가70~80%를 차지하는 사료업계에도 예외없이 파급되어 지난 7월초 사료협회는 연일 회의를 거듭한 끝에 7월 10일 경부터 6~10%의 가격 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양계업계에서는 별다른 대책을 준비하기도 전에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료업이 궁극적으로 살아 남는 길은 결국 양계업이 꾸준하고 건실하게 발전해야 할 것이며 또 사료공업이 발전하여 질이 우수하고 신용있는 제품을 원활히 공급할 때만 양계업도 같이 발전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사이비 양계인이 도태되어 업계가 체질개선이 되고 정화되는 기회로 삼자는 의견도 있고, 정화되기 전에 전양계인은 죽고 마는 극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이도 있다.

이런 때 일수록 난관을 극복하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으며,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대책을 세우기 전에 각 관련업계에 있는 인사들로 부터 의견을 종합하여 반영하는 것도 의의있는 일로 생각하여 긴급 지상 공청회를 가져보는 바이다.

## 농림부의 견해

1. 최근 환율인상 계기로 배합사료 가격을 인상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감안하여 각 도지사에게 배합사료 가격을 시정토록 지시하였고.

2. 환율 인상에 따른 배합사료 가격의 인상문제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강구 중이므로 정부물가 시책에 따라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각별한 조치를 하겠다.

가) 폐계 도태를 조기에 실시함으로써 사료의 수요증가를 둔화시켜 양축가의 사료비 부담을 절감시킨다.

나) 정부 관리양곡 부산물의 탈지강을 배합사료 원가를 절감한다.

다) 사료 제조업에 대한 현행과세 표준율5.5%를 4.5~4.0%로 인하하도록 국세청에 요청한다.

라) 사료 조절 자금을 지원(추갱으로 확보) 함으로써 일시에 대폭 인상을 억제한다.